

#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동인지 발간 '눈길'

광주전남아동문학인회  
'발가락섬 이야기' 펴내  
동시·동화·평론 등 수록  
방정환 선생 동요 '눈' 등 5편도

"우리는 아동문학을 하는 사람이자, 전문 작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어린이를 알고, 인간의 원초적인 동심을 연구하고, 문학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하며, 꾸준한 글쓰기를 통해 그걸 구현해야 하겠습니다."



광주전남아동문학인회는 지난해 5월 장흥 해동사로 문학 여행을 다녀왔다. <아동문학인회 제공>

올해는 어린이날 100주년 되는 해다. 지난 1922년 5월 1일 소와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의 날'을 제정했고 이듬해에는 한국 최초의 아동잡지 '어린이'를 창간해 우리나라 아동문학의 새 장을 열었다. 동심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심성이다. 그러므로 아동문학은 기본적으로 어린이를 알고, 어린이와 함께하는 인간성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광주전남아동문학인회(회장 김복)가 올해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해 동인지 '발가락섬 이야기'를 펴내 눈길을 끈다. 특히 이번 동인지에는 방정환 선생의 동요 5편이 수록돼 있다. '귀뚜라미', '기와 한 장', '뒹집 영감', '눈은 잠자리', '눈' 등의 작품은 어린이에 대한 소파의 사랑과 동심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다. '귀뚜라미 귀뚜라미/가느단 소리/달님도 추워

서/파랏습니다// 올 밑에 과꽃이/네 밤면 자면/눈 오는 겨울이/찾아온다고//귀뚜라미 귀뚜라미/가느단 소리/달밤에 오동요이/떨어집니다."(동요 '귀뚜라미') '어린이날 100주년, 방정환 선생님을 기리며'라는 부제가 붙은 동요는 오래 전 잃어버린 동심을 환기한다. 시어 하나하나가 맑고 단아해 그저 읊조리기만 해도 한 편의 동시로 화한다. 이번 작품집에는 50여명의 동시인들의 작품이 실려 있다. 강상구·김기리·서향숙·양인숙·윤삼현·이성자·정혜진·조향숙 등의 시인이 참여했다. 동화 작품은 김복 동화작가를 비롯해 강순덕·김용국·배다인·안영옥·양정숙·정소영·조연화 작가의 작품을 수록했다.

평론에는 노창수·김관식 평론가가 각각의 평론을 게재했다. 노 평론가는 '한국 현대 아동문학 역사(略史)에 대한 시고(試稿)'에서 아동문학의 시기별 특징과 작가 작품을 분석한다. 김 평론가는 '신춘문에 당선 동시의 차별성'이라는 주제의 글에서 동심의 개념과 시적인 형상화 특징 등을 조명한다. 한편 김복 광주전남아동문학인회 회장은 "어머니가 아이에게 짓을 주는 것은 이 세상 가장 큰 사랑과 평화의 모습일 것"이라며 "이 땅에 어린이는 영원할 것이고 그 어린이가 이 세상을 이어갈 것이며 우리는 이 세상을 이어갈 그 어린이를 위해 글을 쓴다"고 발간 의미를 부여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박진현의 문화카페

부천시 수영구에 자리한 F1963은 전국적으로 소문난 복합문화공간이다. 1963년부터 2008년까지 45년간 와이어를 생산하던 옛 고려제강을 건축가 조병수의 설계로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플랫폼으로 변신시킨 곳이다. 공장의 창립 연도에서 이름을 따온 F1963년에는 전시장과 공연장, 도서관, 카페, 서점 등 그야말로 '없는 게 없다. 그중에서도 요즘 가장 핫한 공간은 'F1963 예술도서관'이다. 지난 2019년 '책을 매개로 예술과 만나는 새로운 공간'이라는 콘셉트로 문을 연 이 곳은 말 그대로 색다른 분위기가 압권이다. 그도 그럴것이 부산 유일의 '예술전문도서관'을 하기 위해, 또는 책을 빌리기 위해 이용하는 우리와 달리 선진국의 도서관은 시민들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었다. 무엇보다 암스테르담 도서관의 매력은 이용객 중심의 쾌적한 분위기였다. 어둡고 삭막한 모습 대신 화려한 조명과 화이트 톤의 쾌적한 인테리어가 근사한 카페나 복합문화공간을 보는 듯했다. 1층 로비의 에스컬레이터 옆의 전시장에는 연중 예술가들의 작품이 내걸리고 지하 1층에 자리한 어린이 코너에선 동화구연과 마술쇼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펼쳐졌다. 지난 2017년부터 광주시가 서구 옛 상무소각장터에 공들여 추진해온 '대표도서관'이 마침내

## 문화를 품은 '대표도서관'

관'답게 미술·사진·음악·건축장르만의 책을 비치하고 있어서다. 세계 미술의 역사와 주요 사조를 대표하는 작품집과 국내의 유명 미술관에서 발행한 전시 도록, 분야별 예술인문서적을 갖추고 있다. 1만3000권의 소장도서 가운데 80% 이상이 외국출판물이다. 특히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희귀도서들이 상당하다. 클래식 음악 악보와 DVD·음반도 소장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에는 학술활동을 위한 세미나실, 다양한 음반을 감상할 수 있는 시청각 공간, 소규모 모임과 강연을 위한 강의실도 들어서었다. 지난 2018년 본보 '문화를 품은 도서관' 시리즈의 취재를 위해 방문했던 유럽의 유명도서관에서도 비슷했다. 암스테르담, 코펜하겐, 뒤셀도르프 등 유명도시의 가장 특색 있는 곳은 공공도서관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도서관에는 유아에서부터 시니어까지 책 읽는 사람들로 북비 문화도시의 저력을 보여줬다. 시험공부

다음달 첫발을 뗀다. 지난 2019년 11월 대표도서관 건립 국제건축설계공모에서 선정된 세르비아 출신 브라슬라프 레디의 설계안을 토대로 다음달 업체선정을 마무리짓고 오는 2024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연면적 1만1286㎡에 국·시비 458억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의 브릿지 형태로 건립되는 대표도서관은 멀티미디어, 영유아, 일반자료 열람실, 각종 문화교육공간, 편의시설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미술관이 한 도시의 미적 안목을 엿볼 수 있는 지표라면 도서관은 지적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시니어들이 전시장을 찬찬히 둘러 보는 풍경과 어린이 열람실에서 자녀와 함께 책을 읽는 젊은 엄마들의 모습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설렌다. 광주의 대표도서관이 시민들의 도심 속 심터이자 문화놀이터가 되기를 기대한다. <문화·예향담당국장, 선임기자>

## 광주 출신 박시영 시인 '겨울의 바깥' 펴내

"이 말들이 다 어디서 흘러왔을까. 한 그릇 가득 고인 말들을 흘려보낸다. 어쩌면 마른 흙을 적시기도 하리라." 시인의 말에 드러난 시인의 눈길은 소외된 곳, 그늘진 곳이다. 그래서 "마른 흙을 적시기도 하리라"라는 말은 내면에 담긴 따스한 언어를 세상 밖으로 흘려보내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위로하고 다독이려는 의미로 다가온다. 광주 출신 박시영 시인이 '겨울의 바깥' (시와문학)을 펴냈다. '젓은 꽃', '돌의 틈새', '흑백 풍경', '그림자' 등 모두 50여 편의 작품은 머리로 풀어진 것이 아닌 일정한 부분 체험이 가미된 시들로 다가온다. 특수학교 교사로 오랫동안 근무했던 경험은 우리 사회 소수자인 장애인이나 외국인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따스한 시선으로 이어진다. '비가 내린다// 이국의 경작지에 몸을 부린/이 어린이가 빛나는 외국인 노동자// 식료품 가득 담은 비닐봉지/오토바이에 싣고 달린다// 소소한 행복이 봉인된 희망을 꿈꾼다// 매트릭스에 갇혀 서로의 가시에/수없이 찢려온 늙은 내국인 노동자//



비가 오는데 낙엽처럼 젖고 있다// 낮선 그들은 서로 닮아 있다..." 위 시 '젓은 꽃'은 외국인 노동자와 우리나라 노동자의 삶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두 노동자 모두 "비가 오는데 낙엽처럼 젖고 있다"에서 보듯 고단한 삶을 이어가야 하는 팍팍한 현실에 처해 있다. 빗물이 들이치는 결코 녹록지 않은 삶의 현장에서 '젓은 꽃'으로 존재해야 하는 노동자는 오늘을 사는 소외된 이들의 실상과 결부된다. 박시영 시인은 해설에서 "그의 시 속 퍼소나는 세상에 갖나 가 어려움을 겪는 아이를 보면 자신이 당면한 어려움을 잊은 채 먼저 돌보는 코라(Chola)적 모성을 체현한다"고 평한다. 한편 박시영 시인은 '시와상상'으로 등단했으며 2018년 '최하림 시의 현실인식연구'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시집 '바람의 눈'을 펴냈으며 '시와문화'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한국문학 미래가 될 젊은 작가 천선란 1위...예스24 선정

천선란(사진) 소설가가 '2022 한국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에서 1위로 선정됐다. 예스24는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11일까지 진행된 온라인 투표에서 천선란 작가가 '2022 한국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총 33만8807명의 독자들이 참여했으며 소설가와 시인을 비롯해 16명의 젊은 작가를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천선란 작가가 3만9740표(9.2%)를 얻어 1위에 올랐다. 2위는 3만1763표를 얻은 임술아 작가가, 3위는 3만1733표를 차지한 이유리 작가가 차지했다. 지난 2019년 '천 개의 파랑'으로 제4회 한국과학문학상 장편 대상을 수상한 천 작가는 당시 동식물과 인간을 모티브로 하는 작품을 펴내 눈길을 끌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광주음악협회, '실용&생활 음악콩쿠르' 참가자 모집

### 이달 19일까지 접수

사)한국음악협회 광주광역시지회가 '제5회 전국 실용&생활 음악콩쿠르' 참가자를 모집한다. '전국 실용&생활 음악콩쿠르'는 실용음악 전공을 준비하는 초·중·고교생이 출전하는 '실용 부문'과 아마추어 성인 음악인이 참여하는 '생활 부문' 두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참가곡은 자유곡 1곡이며 접수는 8월 19일까지다. 경연 분야는 실용 부문의 경우 재즈피아노·보컬·피아노(건반)·작곡·기타·드럼·베이스·색소폰·트럼펫·트롬본·클라리넷이며, 생활 부문은 성악·관악·현악·오카리나·우쿨렐레·색소폰·아코디언 등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체대상에는 예회회장이 수여되며, 부문별 대상과 최고상 그리고 1·2·3등에게는 상장과 상패가 수여된다. 이외에 성악 독창부문 대상수상자에게는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특전이 주어진다. 사)한국음악협회 광주광역시지회는 '전국학생 음악경연대회', '신인음악회', '광주음악제' 등을 주최해 광주 전남지역 문화예술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전공자 위주의 콩쿠르에서 벗어나 일상속에서 음악을 취미로 하고있는 생활 예술인이 이런 콩쿠르를 통해서 자신의 음악적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다시 돌아가는 자연의 집

# 수 목 장

누구에게나 필수인 영원한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 1522-9341